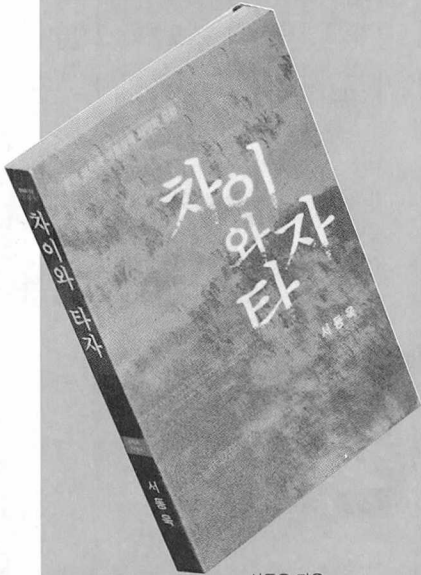


## '비표상적 사유'로 근대 이후 전망해 정치적 사유는 생략돼

《차이와 타자》



서동욱 지음  
문학과학성사/A5신/396면/14,000원

“주체 없는 과정”이란 알튀세르의 유명한 테제 이래, 20세기 후반의 철학은 ‘신이 없는 세상에서 주체가 된’ 근대적 인간 개념의 무근거성을 폭로하는데 몰두해 왔다. 주체 개념에 대한 현대적인 공방전은 근대의 형성기에 ‘신’ 개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공방전을 방불케 한다. 레비-스트로스, 알튀세르, 푸코, 데리다, 리오타르, 들뢰즈 등이 ‘동일성’과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에 의해 지지되는 근대적 주체 개념을 비판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비판이론가들은 주체 개념 없이는 사회변혁의 행위자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후기구조주의자들을 비판해 왔다.

서동욱의 《차이와 타자》는 이와 같은 서구 현대철학의 쟁점들을 정면으로 다뤘으며, 그가 손을 들어주는 쪽은 후기구조주의자들이다. 그의 이번 저서가 특히 돋보이는 것은 복잡하기로 악명높은 들뢰즈의 저작들을 핵심적인 쟁점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논평을 가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책의 미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들뢰즈 이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인데, 특징적인 것은 이를 해명하기 위해 ‘들뢰즈 이전’의 현상학자인 레비나스를 그와 비교한다는 점이다. 주체개

념 없이 살 것인가 혹은 새로운 주체 개념과 더불어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근대의 자기동일적 주체는 외부 세계에 맞서 주체의 구성적 힘과 능력을 키우고자 했고, 형이상학과 신의 왕국을 타파했고, 동시에 타자들의 나라를 정복해왔다. 저자는 이와 같은 근대적 주체의 정복 능력이 차이를 종속시키는 동일성의 개념적 형식을 나타내며, 다양성을 하나의 표상 속에 결합시키는 능력이자, 대상을 시간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의식이 스스로를 시간화하는 ‘표상적 사유’라고 요약한다. 그리고 이에 맞서 들뢰즈 등이 수행한 작업은 “표상적 사유는 철학을 독살”하는 것이므로, 감성을 찌르면서 들어와 해석할 수도 그렇다고 잊을 수도 없는 채 상처를 만들어내는, 표상될 수 없는 것과의 만남을 사유하는 ‘비표상적 사유’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평가된다. 표상활동을 통해 동일적인 것의 형식 속에서 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지는 세계 대신에, 비표상적 사유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상위의 동일성을 전제하는 차이가 아니라, 어떤 상위 개념도 전제하지 않는 ‘차이’ 자체인 것으로 밝혀진다. 이렇게 해서 ‘이질적인 것으로부터의 촉발’ ‘혼적으로서의 타자’ 개념들이 부각되며, 근대적 사유의 중심이었던 주체와 동일성은 타자와 차이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그러나 저자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주체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 한물 갔던 철학자 레비나스를 다시 불러내며, 타자에 의해 구원받는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의혹이 남는다. 후기구조주의적 사유를 둘러싼 최대 쟁점인 정치적 사유가 생략돼 있다는 점이다. 들뢰즈/데리다와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의 논쟁 대신에 왜 들뢰즈 대 레비나스인가? 왜 들뢰즈는 주체 개념을 해체하려 했으며, 저자는 왜 새로운 주체 개념을 필요로 하는가? 이 책은 이런 문제들을 남겨둠으로써 분석적인 미덕이 있음에도 아쉬움을 남긴다.

###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저서 《탈근대 문화정치와 문화연구》 《문화사회를 위하여》 외.

## 우리 전통예절의 근거인 경전 역주자의 경학관 문제 있어

《의례(전3권)》



정현 · 가공인 주소 | 오강원 역주  
청계출판사/A5신/440면 내외/21,000원 내외

《의례(儀禮)》는 오랫동안 동양의 교과서로 사용돼 온 고경(古經)으로 9경, 13경 가운데 하나다. 공자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사상과 문헌들을 집대성해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악경》 《춘추경》의 육경(六經)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진시황이 분서갱유한 후 한나라 때 육경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시경》 《서경》 《역경》의 삼경은 정리됐으나, 《예경》은 《주례》 《의례》 《예기》의 삼례(三禮)로 바뀌고, 《악경(樂經)》은 음악의 이론만 《예기》 중의 한편인 《악기편》이 됐고, 《춘추경》은 세 사람의 제자가 해설을 붙인 《좌전》 《공양전》 《곡양전》의 삼전(三傳)으로 변했다. 삼경·삼례·삼전을 합해 구경이라 했다.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부터 송나라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바로 구경이었다. 중국은 송나라 이후, 우리나라는 조선조 시대에 사서, 즉 《논어》 《대학》 《중용》 《맹자》와 오경, 즉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를 가장 중시했다.

공자가 정리한 원래의 《예경(禮經)》은 알 수 없고, 한나라 때 정리된 예에 관한 글이 셋이 있으니, 이를 《주례》(주(周)나라의 관직제도 등을 서술한 책)와 《의례》(사(士)계급의 예절과 의식

등을 주로 서술한 책), 《예기》(예의 원리부터 구체적인 행동규범까지 다양하게 서술한 책)의 삼례(三禮)라고 했다. 한나라 때는 《의례》를 오경 가운데 하나로 보기도 했으나, 당나라 때부터 《예기》를 오경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것은 《의례》보다 《예기》의 내용이 교과서로 시의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역주자는 《의례》가 포함된 오경만이 경이고, 《예기》나 《논어》는 경이 아니라고 봤는데, 협의로 말할 때는 공자가 산술(刪述)한 육경만을 경이라고 하나, 광의로 말할 때는 십삼경을 모두 경이라고 해왔다. 그런데 공자의 사상과 말씀이 가장 잘 수록돼 있는 《논어》를 경이 아니라고 폄하하는 것은 잘못이다.

역주자는 송·명대의 성리학적 경학을 폄하했다. 경전의 주석에는 원래 한대의 주석[古注], 송대의 주석[新注], 청대의 주석이 있는데, 모두 각기 특징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국의 송·원·명대에 정자·주자의 신주를 가장 중시했으니, 그것이 경전의 진의를 가장 잘 설명했기 때문이었다. 청나라는 이민족으로, 한족의 사상과 문화는 물론 경학까지도 폄하하려는 학풍이 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역주자의 경학관이 너무 지나치게 이들에 치우쳐 그 주석과 해설에 문제가 있다.

우리 전통예절의 근거는 바로 《예기》와 《주자가례》에 있고, 《예기》와 《주자가례》의 근거는 바로 《의례》기 때문에, 《의례》를 고경(古經)이라고 한다. 《예기》나 《주자가례》의 예설(禮說)이 《의례》의 예설과 서로 일치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치되는 경우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예기》와 《주자가례》를 읽은 후 《의례》를 보는 것은 좋으나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이 고례인 《의례》만 읽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몇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경》에 대한 번역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의례》를 번역한 일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조준하

동덕여대 교양교직학부 교수. 저서 《대학한문》 《교양한문》 《윤리도덕교본》, 논문 《예의 연원적 고찰》 《예의 연원적 고전개》 외.

서평

## 미디어의 기만성 고발한 역저 매스미디어의 탈신화화에 기여 《커뮤니케이션의 횡포》



이냐시오 라모네 지음/원윤수의 옮김  
민음사/A5신/198면/9000원

지은이는 이 책에서 신문의 몰락과 텔레비전의 득세를 고발하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문화·정보 논리에 대한 산업 논리의 우위를 고발한다. 그는 큰소리로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대중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고발한다.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외치는 강도로 봐서 그는 소위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지은이는 오늘날을 '커뮤니케이션 시대' '정보시대' '미디어 시대' 라고 지칭하는 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 영향력으로 봐 세계는 곧 미디어가 만든 구세주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다. 근대사회와 함께 등장한 미디어는 하나의 사건을 같은 시간에 전세계에 전달한다. 이제 텔레비전은 전세계인들의 감정을 관리·통제하면서, 필요한 경우 전세계인들을 정서의 과잉상태(미치광이?)로 몰고 간다. 왜 이런 횡포가 발생하는 것일까? 지은이는 미디어가 본연의 역할에서 점차 멀어지는 이유를 자본주의 경제논리와 무한경쟁(전쟁) 속에 존재하는 미디어기업의 생존논리의 결과물로 파악한다.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대기업의 꼭두각시면서

'새로운 주인을 지키는 파수견'이 된 것이다. 모든 것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운영된다. 커뮤니케이션, 영상, 미디어 기업은 서로 합병을 통해 거대 복합기업을 형성해, 커뮤니케이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공룡들의 전쟁 속에서 시민들은 기만당하고, 전 세계는 미디어의 거짓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지은이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 책의 많은 분량을 미디어기만의 고발에 할애하고 있다. 새로운 소식을 진실되게, 올바르게, 양심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텔레비전은 스포츠 중계하듯이 사건을 보여주지만 한다. 하나의 동시간대에 전세계에 전달되는 기술발달의 놀라움 뒤에는 인간들이 반성할 시간없이 쏟아져나오는 정보의 홍수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진실과 거짓의 올바른 판단을 하기도 전에 새로운 뉴스 속에서 익사하거나 광분해야 한다. 뉴스는 이제 오락이면서 하나의 쇼가 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의견의 공개시장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꽃 피운다는 희망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 이제 기자도 옛날의 기자가 아니다. '하루의 분석가' 이던 기자는 정보의 과잉공급과 보여주지만 하는 뉴스보도 관행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거나 거대공장의 단순 노동자로 전락한다. 미디어와 시청자가 직접 연결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위조와 속임수는 증폭된다. '총괄적인 정보사회'에서 지은이가 제시한 대안은 미디어의 정보를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 스스로가 분석하고, 필요한 만큼 흡수하는 것이다. 이 책의 이론들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현상의 변화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다.

번역자들의 진지한 토론 덕분에 읽기 쉽게 번역됐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많은 상상력을 제공할 것이며, 일반독자들에게는 매스 미디어에 대한 탈신화화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횡포에 대한 이론적 혹은 구체적인 대안은 독자의 몫이다.

## 김승현

고려대 신방과 교수. 저서 《정보사회 정치경제학》, 논문 《매스미디어와 세계문화》 외.